

아라리오갤러리, 손수광 첫 유작전 개최

1970-90년대 한국 구상 계열 사실주의 서양 회화 재조명
첫 번째 대규모 회고전에 미공개 누드 시리즈 등 70여점 선보여



손수광 SOHN Sookwang_여인 A Woman_1974_캔버스에 유화 oil on canvas_110.5x161cm

전시 제목	손수광 SOHN Sookwang
전시 기간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 2017년 1월 8일 일요일
전시 장소	갤러리 아라리오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전시 작품	회화 작품 70여 점
관람 시간	월요일 - 일요일 11:00 - 19:00 신세계M 충청점 정기휴점일, 추석에 휴관
관람 요금	어른 3,000 원, 학생 2,000 원, 미취학 어린이 무료 청소년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무료입장, 사전 예약 시 도슨트 제공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Museum Day' 입장료 무료
전시 해설	토, 일 오후 2시, 4시 (주중 전시 기간 중 사전 예약 시 도슨트 제공)
오프닝 리셉션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2016년 9월 20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한국 근현대 구상회화를 대표하는 작가 손수광(1943-2002)의 첫 번째 유작전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작가 살아 생전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과 오랜 인연과 예술적 교류를 기림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지지와 애정에 기반해 마련되었다. 또한 구상화 전통이 점점 퇴색해가는 동시대 한국미술계에, 잊혀져가는 이름인 구상화가 손수광의 작품으로 다시 한번 구상화에 대한 담론을 재기하고자 준비된 전시이다. 손수광의 작고 이후 최대 규모의 전시가 될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사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미공개 작품들을 포함해 파리 거주 시절(1979~1982)부터 귀국 이후 우이동 화실과 해인사 작업실 등지에서 제작한 작품 등 70여 점이 소개된다.

대상의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재현적 회화는 조형 언어에 있어 중요한 어휘이자 문장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1910-1945)에 서구 미술이 수용되어, 재현에 대한 한국식 사유가 정치적 왜곡 속에 굴절되어 정착되었다. 해방 이후 재현에 바탕한 구상미술은, 일제시대 활약했던 원로화가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형성된 제도권 속에서 구축되었다. 즉, 50, 60년대 구상회화는 아카데미즘을 계승하고 사실주의 회화 경향을 드러냈다. 하지만 50년대 말 화단을 휩쓸었던 영포르멜 열기와 60년대 이후 모더니즘의 전개 속에서 구상은 추상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당대 한국 미술에서 서양화는 구상과 비구상이라는 이원적 개념 하에 편협하게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등장한 손수광의 회화는 단순히 당대 서양화 전통에 기반한 재현적 구상 회화를 반복하기보다는, 서양화 전통 위에 작가 특유의 인간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표현적 형상을 더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가 주로 다루는 풍경, 누드, 인물은 작가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섬세한 뉘앙스가 더해져 표출된다. 그리고 작가가 사용하는 색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담아내는 유용한 수단, 즉 작가가 예민하게 감지한 두렵고 공허한 인간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손수광 회화 속 조형 패턴은 인물, 정물, 풍경과 같은 형상에서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회화에 대한 부단한 천착을 기반으로 한 그의 작품은 현대적 구상 회화의 새로운 돌파구로 인식되었다.

그의 회화 작품의 '대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대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생각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기존 구상회화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왔다. 그 점에 대해 손수광은 "내 그림은 일종의 오브제로서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인간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손수광의 1970-90년대 회화작품을 집약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사후 처음 공개되는 누드 작품 시리즈를 소개한다. 본 전시를 통해 작가가 활동했던 당시 구상회화의 오랜 패러다임과 관념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1970-90년대 한국에서 꽃피웠던 특정 화풍과 재현 방식을 환기할 기회를 마련하리라 기대한다.

한편 갤러리 아라리오 천안은 이번 전시와 더불어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 예술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창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소 생소한 '큐레이터' 직군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참가 문의 : <http://www.ggoomgil.go.kr>, 041-640-6265)

● 작가 소개

1943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난 손수광은 1955년 서라벌 예술대학(현 중앙대) 서양화과를 졸업하였다. 1964년 국전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구상회화 작가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이후 문공부장관상을 2차례에 걸쳐 수상하고, 이후 1979년 파리로 건너가 1982년까지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1980년 파리 그랑드팔레에서 열린 르 살롱(Le Salon)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여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그 밖에 모나코 왕실 미술관의 몬테카를로 국제전시에서 국제박물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서양미술 화단에서는 '목우회' 그룹에서 사실주의 구상회화의 후진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교수 및 예술대 학장을 역임했다. 그 밖에, 오늘의 한국미술전(예술의전당),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 서울국제현대미술제 초대(국립현대미술관), 광복 50주년 기념 및 유네스코 50주년 기념전(유네스코 본부, 파리), 한.중

현대미술 교류전(중국 절강성 박물관, 특별실), L.A 아트페스티벌 (로스엔젤레스, 미국) 등 2002년
별세할 때 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지속해갔다.

● 작품이미지



(좌) 손수광 SOHN Sookwang_여인 A Woman_1974년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110.5 x 161 cm

(중)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77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100 x 80.5 cm

(우)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77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116.5 x 80.2 cm



(좌)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76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80.3x65.3cm

(중)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88-9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53.5x53.5cm

(우)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연도미상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



(좌)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79-81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46x55cm

(중)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85-6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45.6x53.5cm

(우) 손수광 SOHN Sookwang_무제 untitled_1979-1981년경_캔버스 위에 유화 oil on canvas_22.6x27.8cm

● 작가약력

학력

1966년 서라벌예술대학원(현 중앙대학교) 미술학 학사 졸업

기관 경력

1965년-1988년 목우회 이사 및 공모전 심사위원

1965년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1971년-2002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교수 및 서양화학과장

전시경력

1964년 제2회 신인예술상전, 국립현대미술관

1965년-1987년 목우회전

1968년 대한민국 미술협회전, 국립현대미술관

1973년, 제1회 신형상전 창립전

1975년-1976년, 아시아 현대미술전, 동경 동경도 미술관

1975년 민족기록화(전승편) 청산리 싸움 300호

1975년 한국 원로 중진작가전

1976년-1981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추천작가전

1976년 개관기념 초대회화 작가전, 태인화랑

- 1977년-1978년 영남 사실작가전, 부산
- 1977년 30인 신춘 초대전, 갤러리 현대
- 1977년 한국 현대 미술대전: 서양화, 국립현대미술관
- 1977년 회화작품전, 대구 현대화랑
- 1978년-1979년 미술단체 연립전, 국립현대미술관
- 1978년 개인전 부산 원화랑
- 1978년 개관초대전, 부산 국제화랑
- 1979년 서양화 6인 초대전, 태인화랑
- 1979년 현역 30대 작가전, 문화화랑
- 1980년-1981년 몬테카를로 국제전, 몬테카를로 왕실미술관
- 1980년 르 살롱전, 파리 그랑팔레
- 1981년 르 살롱전, 파리 그랑팔레
- 1981년 살롱 도 톤느, 파리 그랑팔레
- 1981년 소시에떼 내셔널 데 보자르 전, 프랑스
- 1981년 재불작가 초대전, 프랑스 문화원
- 1981년 한독 미술가 협회전, 독일 본 시립미술관
- 1983년 개인전, 선화랑
- 1983년 개인전, 대구 이목화랑
- 1986년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국립현대미술관
- 1987년 `87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 1987년 `87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 1987년 개관기념전, 현대화랑
- 1987년 일본 홋카이도: 목우회 교류전, 국립현대미술관
- 1987년 한중미술가협회전, 대만
- 1988년-1989년 시가 있는 그림전, 서림화랑
- 1988년 한국의 풍물화 100호전, 롯데미술관
- 1988년 `88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 1988년 `88 한국 현대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 1988년 한국 풍물화 7인전, 서림화랑

- 1988년 일본 북해도, 한국 목우회 미술전, 일본 북해도 근대미술관
- 1988년 소품 50인전, 서림화랑
- 1988년 목우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국립현대미술관
- 1989년 목우회 서울 회원전, 서림화랑
- 1989년 선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 작품전, 선화랑
- 1990년 7인전, 서림화랑
- 1990년 개인전, 서림화랑
- 1990년 목우회 한중 합동전, 서울시립미술관
- 1990년 신춘 5일 초대전, 대구 이목화랑
- 1990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동문회화전, 서울갤러리
- 1990년 화랑미술제, 호암갤러리
- 1990년 제5회 서울아트페어
- 1992년 `92 서울 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 1992년 `92 IAA 서울기념전
- 1992년 한국 목우회-몽골 화가단 합동전
- 1992년 `92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 1993년 미술협회 회관 건립 작품전
- 1993년 `93 오늘의 한국 미술전
- 1993년 제1회 교수신문 전시회
- 1993년 제2회 오지호 미술상 기념전 초대출품
- 1993년 엑스포 `93 한국의 풍속화전
- 1993년 `93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 1993년 전관 개관기념 현대미술전, 예술의전당
- 1994년 `94 서울미술대전, 서울시립미술관
- 1994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 1994년 `94 오늘의 한국미술전
- 1994년 개인전, 인 화랑
- 1995년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건립기금 조성전
- 1996년 평택 국제 아트 페스티벌-`96 동방의 등불, 평택 문화예술회관

1996년 현대 리얼리즘으로의 초대전, 포스코 갤러리

1997년 선,화랑 개관 20주년 기념전, 선 화랑

1999년 현대미술 12인 초대전, 예인 화랑

수상

1964년 제2회 신인예술상전 장려상

1965년 제14회 대한민국 국전 특선

1966년 제15회 대한민국 국전 특선

1968년 제17회 대한민국 국전 입선

1970년 제19회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

1972년 제21회 국전 특선

1973년 제22회 국전 입선

1974년 제23회 국전 특선

1975년 제24회 국전 문공부장관상 수상

1978년 제27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추천작가상

1980년 프랑스 르 살롱전 금상

1985년 선미술상

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ARARIO GALLERY_CHEONAN]→ [손수광] 폴더 안 자료 참조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자세한 정보는 아라리오갤러리 홈페이지(<http://www.arariogallery.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대표번호 041-551-5100

보도자료 문의

홍보팀 | 양민희 선임 M. 010-9249-9296 E. dream@arario.com

전시팀 | 김서영 담당 M. 010-8857-9185 E. seoyoung.kim@arariogallery.com